태국 타나쿤 그룹 (주)락타나쿤 쑤퐁 CEO

만성적인 분뇨문제 더블 콤포스트로 말끔히 해결
유기농업 부문 최근 2년 만에 21% 급성장
농업 부문 생산성 혁신 가져올 제품 생산 준비

대담 | **윤흥선 이사**



△ 락타나쿤 쑤퐁 CEO는 한국의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타나쿤 그룹과 본인을 소개해 주십시오.

– 타나쿤 그룹은 치앙마이를 근거지로 한 농업법인입니다. 사료, 양계 사업과 쌀을 비롯한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부친이 1968년 태국 북부에서 쌀 도소매 유통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성장했고 사세를 확장해 1980년 가축사료 제조와 도소매 전문 회사인 (주)타나쿤 브리딩을 설립해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저는 2004년 자회사인 락타나쿤을 설립해 양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치앙마이 외곽인 람푼 지역에 약 40~50만 수의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첨단 사양기법과 선진 품질관리 기술을 도입해 계란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현재 일일 54만 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 Central Queensland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유학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왔을 즈음에 부친이 닦아놓은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친을 어릴 때부터 지켜본 저는 농업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자회사인 (주)락타나쿤을 설립해 50만 수의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치앙마이 대학교 MBA 과정을 이수하면서 양계 사업을 준비해 2004년 락타나쿤을 설립해 경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타나쿤 그룹의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계열사 내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무진테크노사의 더블 콤포스트를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 계란 생산량이 꾸준히 늘면서 닭 배설물 처리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분뇨처리는 업계의 공통 과제이지만 태국 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해외 업체들을 조사했습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처리량과 경제적인 운영이라는 두 가지 니즈(Needs)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많은 업체들과 미팅을 해봤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제품이 무진테크노의 더블 콤포스트라고 확신했습니다.

기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이 두 가지를 섬세하게 고려한 무진테크노 기술진들의 고민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무진테크노가 업계 농장주들이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무진의 고객 중심적 철학이 제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진테크노의 더블 콤포스트는 매우 뛰어난 내구성과 효율성이 강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많은 양의 계분을 처리하기 위해 기본적인 부피와 용적이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계 운용 면에서 농장주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봅니다.

태국에서 콤포스트를 이용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 단기적으로는 태국의 양계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에 무진테크노의 콤포스트를 '친환경적 분뇨 처리의 토탈 솔루션' 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할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콤포스트 보급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발효 계분 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유기질 비료를 비롯한 다양한 부산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무진테크노는 분뇨를 고속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부산물을 유기질 비료 및 다양한 상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한 유일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무진테크노와 지속적인 공동 기획과 개발을 통해 태국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적인 환경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공통된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의 양계 농장에서 계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 현재 태국 대부분의 양계 농가는 자연건조를 하거나 위탁업체를 통해 계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기에는 계분을 자연건조시킨 뒤 식물성 물질과 혼합하여 퇴비로 만든 후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계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우기에는 악취에 대한 강도 높은 민원으로 인해 급하게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농가는 바이오 가스탱크 설비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처리하지 못하면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을 텐데 태국 축산농가의 실태는 어떠한지요?

–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한 축분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태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가스 설비 등 일부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축산농가가 이와 같은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농장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 무진테크노의 더블 콤포스트를 락타나쿤 농장에 설치하고 있는 모습

긍정적인 점은 현재 태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유기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태국의 화학 비료시장의 성장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반면, 유기농업 부문의 성장은 최근 2년 만에 21% 증가하는 등 농업생산의 생태계가 급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써 동물성 분뇨를 원료로 하는 유기질 비료 생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양계 농가를 들려보셨을 텐데요. 한국과 태국의 양계농가가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콤포스트를 운용하는 양계농장에 방문했을 때 악취가 거의 나지 않아 놀랐습니다.

또한, 보다 최적화된 계분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산란계의 식습성부터 하우스 내 에어 레이션 설비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통제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낙후된 유창 양계장의 현대화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콤포스트 도입 등에 50% 이상 지원해 주는 점도 동종업계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척 부러웠습니다.

타나쿤 그룹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 타나쿤 그룹은 '지속 가능한 환경 자원의 창출' 이라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고 안전한 유기농 작물 생산을 위한 비즈니스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적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위생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방향성은 무진테크노가 추구하는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양사 간의 긴밀한 동반관계를 계기로 무진테크노의 우수한 기술과 비료제조 공법을 태국과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사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소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해 화학물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농업 부문 생산성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을 생산·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현지에 무진테크노 태국 법인을 런칭하고, 향후 5년간의 단계적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반을 닦아나갈 계획입니다.